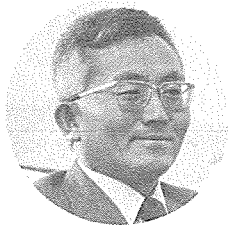


백년전 농무목축시험장 세운
崔景錫

“요절한 근대 농업 기술의
선각자”



朴星來
(韓國의국어大 교수·科學史)

技術革新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아는 일이 되었다. 거의 날마다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고, 또 그것이 산업발전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주로 工業에서의 기술혁신이 관심거리일 뿐, 農業기술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편이다. 하지만 1백년 전 아직 공업이라곤 전혀 없던 시절에는 바로 농업의 기술혁신이 가장 절실한 우리 민족의 숙제였다.

바로 그 시대에 近代農業技術을 배워 오려고 애쓴 우리나라의 선각자 가운데 崔景錫이란 사람이 있었다.

1883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사절단의 한 사람이었던 그는 귀국후 근대식 농장과 목장으로 <農務牧畜試驗場>을 세워 운영했다.

미국에서 많은 근대식 농기구와 종자를 수입해서 시작된 이 사업은 3년을 채우지 못한채 1886년 崔景錫의 죽음과 더불어 사라져갔다. 우리 농업기술의 近代化는 이 기회를 놓친채 다시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崔景錫의 인물 됴됨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다. 언제 어디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난지도 알 길이 없고, 또 1886년의 어느날 죽었는지도 밝혀져 있지 않다. 그의 원래 이름은 崔道敏이었고 아마 文官이 아니라 武官 출신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가 우리 역사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첫 대외사절단으로 미국에 보낸 1883년의 保聘使 일행으로 그가 끼었기 때문이었다. 1876년 開國한 우리나라는 1881년 부터 미국을 비롯한 西洋 여러나라와 외교·통상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1883년 후트公使가 미국의 첫 駐韓사절로 한국에 왔고, 곧 이어 우리의 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다.

당시는 閔씨들이 정권을 크게 좌우하던 때여서 유망한 閔씨 청년으로 閔泳翊이 대표가 되었고 副官으로는 洪英植이 선발되었다. 이들은 徐光範·邊樹·崔景錫 등을 대동하고 6월에 서울을 떠나 9월부터 10월에 걸쳐 40여일 동안 미국을 방문했다. 그 후 閔泳翊 등은 유럽을 거

쳐 귀국했고, 崔景錫 등은 洪英植의 인솔아래 바로 귀국했는데, 이들은 대개 개화세력의 핵심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40여일 동안 이들은 여러가지를 구경할 기회를 가졌다. 정부기관은 물론 갖가지 공장이나 공공시설, 그리고 농장등을 시찰할 수 있었고, 이들의 기이한 모습을 각 도시에 서마다 신문에서 보도될 정도로 그곳의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들에게 특히 관심을 끌게된 것은 아무래도 농업기술 쪽이었던 것 같다. 특히 崔景錫은 이런 기회를 통해 미국의 앞선 농업기술을 조국에 옮겨 심어 보려는 결심을 하게된 것으로 보인다. 9월 보스톤에는 때마침 박람회도 열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수많은 농기구들도 전시돼 있었다. 이들은 또 월코트 示範農場도 구경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역시 큰 감동을 받았다. 閔泳翊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報聘使 일행은 결국 미국 농무성과 접촉하여 농작물의 씨앗을 얻어오기로 약속 받았고, 이어 미국 국무성애다가 농업기술자의 파견을 요청했다. 처음 한국사절단을 맞은 미국 정부는 모든 일에 협조적이었고 농업기술자 파견도 언약해 주었다.

귀국 즉시 洪英植은 高宗 임금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모든 분야에서 빠른 近代化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기 시작한 임금은 즉시 동대문 밖에 상당히 넓은 땅을 하사하여 농사시험장으로 쓰도록 해주었고 이 책임자로 崔景錫이 임명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農務牧畜試驗場이었다.

1884년초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 시험장 위치가 어디 었던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忘憂里 일대였으리라는 추측이 있으나 지금과 달리

보빙사 일행은 미국농무성과 접촉하여 농작물의 씨앗제공을 약속받았고, 국무성에는 기술자의 파견을 요청했다. 이것은 미국의 농업기술을 도입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귀국 즉시 고종에게 미국과의 교섭결과를 보고했고, 고종은 동대문밖에 땅을 하사하여 농사시험장으로 쓰도록 했으며, 이 책임자로 최경석이 임명되었다.

당시에는 동대문만 나가면 완전한 시골이었는데 서울 중심부에서 40리나 떨어진 그곳에 試驗場이 세워졌을 것 같지는 않다.

동대문 밖 10리쯤에 있는 지금의 典農洞 좀이 더 그럴듯한 장소인 것도 같다. 마침 典農이란 임금이 직접 농사를 지어 모범을 보이는 籍田을 뜻하며 바로 지금 典農洞이 그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籍田의 제일 중심이란 先農壇이 바로 거기 있었고, 그 자리 즉 전에 서울師大가 있던 곳에는 지금도 유적이 보전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1886년 2월 15일자 的〈漢城週報〉 기사에는 이 시험장이 남대문 밖에 있는 것처럼 쓰여 있기도 하여 아직 확실적인 것은 없다.

미국에 있을 때 주문했던 농기구들은 1884년 봄부터 도착하기 시작했다. 처음 도착한 것은 18꾸러미였는데 운임과 보험료를 합쳐 모두 751달러 33센트였고, 갖가지 기계가 들어 있었다. 이 금액은 당시의 화폐가치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밖에도 훨씬 더 많은 농기구 등이 주문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崔景錫의 시험장에서는 자그마치 344종의 농작물이 재배되었다. 이 가운데에는 전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작물도 없지 않았으나 대개는 미국에서 새로 들여온 品種의 시험 재배였다.

이들 품종은 표시해 놓은 기록에는 한문 표기가 없이 한글로만 써놓은 캐비지(양배추)와 셀러리 같은 것들도 있지만 대개는 漢字로 이름이 적혀 있다.

344종 가운데에는 꽃이 2 가지 있었으나 나머지는 모두 채소와 곡물이었다. 또 옥수수·콩·팥의 종류는 하도 여러가지여서 구별하기가 어렵다.

崔景錫이 어떻게 이 농사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첫해부터 이미 농사는 크게 성공했던 것 같다. 이들 종자 모두를 재배하여 다시 그 씨앗을 얻었고, 이렇게 얻은 씨앗은 전국 305개 지방에 보내 권장했다니까 대단한 성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대단한 정열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었고, 또 그에게 상당한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그의 씨앗이 실제로 지방 사람들에게 의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의 농목시험장에는 또 소와 말등도 시험사육되고 있었다. 1884년 첫해에는 돼지만 64마리 있었으나 이듬해에는 미국에서 말 3마리, 소한 쌍, 조랑말 3마리, 돼지 8마리, 양 25마리 등이 도입되었다.

그의 농작물은 큰 성공이어서 1885년에는 궁중에 서양 채소를 공급해 줄 정도였다. 하지만 그의 牧畜은 성공여부를 짐작할 수조차 없게 되고 말았다. 이듬해에 그는 갑자기 세상을 떴기 때문이다.

미국에 갔을 때 崔景錫 일행은 미국의 농업기술자를 초청해 두었고, 이 교섭은 그 뒤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가장 이 일에 열성적이었던 지도자가 죽어버린 셈이었다.

결국 그의 죽음을 계기로 해 農務牧畜試驗場은 시들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당장 그해 가을에 이 기관은 임금의 직속기관에서 農務司소속기관으로 格下되어 버렸다.

만약 崔景錫이 조금 더 살았다더라면 이 시험장은 굳건한 토대 위에 한국 근대농업의 발상지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당시 한국 정부는 “牛馬와 羊을 기르고 관리하며 버터와 치즈를 만들줄 알며, 과수를 이식할 수 있는 농업

농무목축시험장에는 대개 미국에서 수입해온 344종의 농작물을 비롯 돼지·소·말·조랑말·양 등의 동물들도 시험사육됐는데, 수확된 씨앗은 전국 지방에 보내 권장했다.

최경석의 농작물시험재배는 성공이어서 궁중에 서양채소를 공급해줄 정도였으나, 목축의 성공여부는 1886년 그의 죽음과 더불어 미해결의 숙제가 되어 버렸다.

기술자”를 초빙하고 있었는데, 월급 150달러와 왕복여비를 제공한다는 조건이었다. 그가 좀 더 살고 이런 서양 기술자가 도착했다더라면 농업기술은 크게 혁신을 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형편은 외국 기술자에게 월급을 제대로 줄 정도도 못된 것이 사실이었다. 당시 이미 근대식 국립교육기관으로 세워진 育英公院에는 서양인 교사 3명이 와 있었지만 제대로 이들의 활동이 지원되지도 못할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 1887년 가을에는 영국의 농업기술자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초빙돼 온 일도 있다. 제프리라는 이 농업기술자는 2年制의 農務學堂이란 농업기술교육기관을 만들어 여기서 한국인을 교육한다는 조건으로 초빙되었으나 1년도 못되어 그 역시 죽어버리는 바람에 농업기술의 近代化는 여전히 미해결의 숙제가 되어 버렸다.

1881년 日本에 다녀온 紳士遊覽團의 한 사람이었던 安宗洙는 <農政新編>(1882)이란 책을 엮어 서양의 농업기술을 소개했다. 당시 일본에 보급되고 있던 근대적인 농업기술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것이다.

安宗洙가 책으로 해내고 있던 노력을 崔景錫은 논밭에서 실행해 보려했던 셈이라 할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책으로 새 것을 소개한다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연히 安宗洙 이후에도 농업기술을 소개한 책은 더 출판돼 나왔다. 그러나 그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논과 밭 그리고 목장에서 시험해 보고 또 그 기술을 널리 국민에게 보급하는 일은 崔景錫의 요절과 함께 위축되고 말았던 것이다.

한국 농업기술사의 안타까운 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